

건강하고 즐거워 운동하자!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술, 담배) **끊고!** (소금, 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한 부산만들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888-3312~5), 16개 구·군보건소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8 11+12 통권16호
 발 행 일 2018년 12월 10일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6호)
 발 행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 집 인 김동준 편집·취재 최유식, 최상욱, 김성무, 하나근
 발 행 처 부산광역시체육회 (T.051-500-7900 F.051-505-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 자 인 대훈기획(T.051-898-0330)

사람과 사람

- 02 파워 인터뷰 I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부회장
- 03 파워 인터뷰 II 부산광역시체육회 윤성덕 부회장
- 04 파워 인터뷰 III 부산광역시체육회 최삼섭 부회장
- 05 파워 인터뷰 IV 부산광역시체육회 최금식 부회장
- 06 파워 인터뷰 V 부산광역시체육회 장호익 부회장
- 07 파워 인터뷰 VI 부산광역시체육회 오권석 부회장
- 08 파워 인터뷰 VII 부산광역시체육회 오종수 부회장
- 09 파워 인터뷰 VIII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

이달의 이슈

- 10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

스포츠 속으로

- 12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부산의 스포츠 소식

- 16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18 2018 부산국제 철인3종 대회 블루오션컵
- 20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 22 2018 부산체육 세미나
- 24 제7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챌린지대회
- 26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27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케이블방송 3사 업무협약식
- 28 2018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 기부금 전달식
- 29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
- 30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32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34 구·군체육회 소식
- 48 회원종목단체 소식
- 50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스포츠 뉴스

- 52 건강소식
- 54 대한체육회, 제8회 2018 대한민국SNS대상 '최우수상' 수상
- 55 대한체육회 캐릭터 달리(Dall)를 소개합니다
- 56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YOG - 12개 메달 획득 쾌거
- 57 대한체육회, 제35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성료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

이달의 스포츠

- 58 럭비 VS 미식축구

문화 속으로

- 62 럭비 영화, 미식축구 영화

INTERVIEW 01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장인화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와 대한수상스키웨이보드 협회장으로 체육계에 봉사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고향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체육회 임직원 간의 소통은 물론 체육 전반의 현안들을 부산 체육인들과 함께 해결하고 그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1997년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 아시아인들의 기억 속에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심어주었던 것처럼 부산 전역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입니다.

전문체육을 발전시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통일과 평화협정에 기여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에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들을 더욱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성장시켜 스포츠로 부산시민이 단합하고 단결하여 부산광역시 발전의 동력원으로 더욱 힘차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부산체육을 이끄는 임직원 및 선수 등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체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과 체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정책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도와 체육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위원장의 소임을 맡아 엘리트 학생 선수들의 운동환경 개선과 동아리 운동 지원 사업 확대로 일반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학교체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부산체육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체육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0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윤성덕



INTERVIEW 03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최삼섭



친애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올림픽대회나 월드컵대회가 열리면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고 ‘컬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등 오늘날 체육은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보급률은 선진국 척도의 기준이 될 정도로 체육의 미래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던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설립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부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산의 모든 체육인이 화합하여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체육역량이 선진국 수준의 웰빙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은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며 이미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갖고 있어 해양스포츠의 생활화와 전문화에 노력한다면 해양 생활스포츠는 물론 해양 전문스포츠인 육성에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대회에 서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있으며 부산이 해양레저 스포츠를 필두로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스포츠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최금식입니다. 저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지난 30여 년간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선보공업(주)을 경영해 온 기업인으로서 이번 부산시체육회 부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제24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8천 미터급 14좌 완등을 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추진력으로 체육운동의 범시민화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설립된 부산시체육회의 설립 취지를 받들어 부산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2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회원종목단체, 교육단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맡게 된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부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노력과 함께 부산체육 선·후배님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부산시체육회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체육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체육인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04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최금식



INTERVIEW 05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장호익



친애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직원 및 부산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16개 구·군체육회와 회원종목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스포츠를 지원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
됩니다.

스포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은 물론이며,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
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등 넓은 의미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체육선수와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하나 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공
동체 의식과 개인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을 사랑하는
부산시 체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오권석입니다.

부산시체육회는 1946년 설립된 이래 그동안 부산의 체육 발전을 위해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시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국제도시로서 위상제고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고 생활체육에 기반하여 내실을 다진 후
전문체육으로 저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부산시체육회가 추진하는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취임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부산 체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협력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부산광역시체육회로 만들어 나갑
시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06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오권석



INTERVIEW 07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오종수



친애하는 부산시민 및 체육회 가족 여러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지역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며, 우수한 체육 인재를 배출하는 우리 부산의 체육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체육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제게 맡겨주신 체육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 도시입니다. 나아가 부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혈연, 학연, 사적인 관계를 벗어나 원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적, 직업적으로 양심의 판단이 우선되는 공정성과 명확성이 최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체육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체육 관계자 분들이 열정과 땀으로 올바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체육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체육회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하면서 부산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체육인 가족 여러분!

먼저, 부산체육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원로 선배님, 선수와 지도자, 체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체육은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체육의 발전 방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을 맡게 되어 더욱 벅차고 의미 있는 일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체육을 사랑하는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선수와 동호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체육인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임기 동안 부산체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산체육 발전에 대한 염원을 잘 받아들이며 체육인으로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08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박가서



은퇴 후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란?

스포츠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연계를 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은퇴선수 잡매칭(온라인),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등으로 은퇴선수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1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운동선수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을 돕기 위해 컨설팅, 집합교육, 멘토링,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서비스이며 지원대상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이며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1:1진로상담 및 취업계획수립 지원, 은퇴 후 변화관리 및 사회적응 전략 수립 지원, 선배 은퇴선수의 멘토링 프로그램, 면접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상담지원, 취업·창업 전문교육 등이다.

문의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070-8146-8181

02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선수들이 취업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로 1인 최대 60만원, 월평균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력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은퇴선수 중 20세 이상이며 그 중 선수경력 3년 이상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만 온라인으로 매월 공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지원한다.

문의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070-8146-8182

03 은퇴선수 잡매칭(온라인) 프로그램

은퇴선수에게 취업희망 분야의 채용정보를 자동 매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만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은퇴선수에게 신청분야의 채용정보를 선별하여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정보를 지원한다.

문의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070-8146-8181

04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동선수 시절부터 은퇴 후 진로를 미리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선수이며 신청은 연중 수시 모집 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운동선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중요성, 스포츠 관련 직업 및 창업, 운동선수 진출 가능 직업 및 자격증, 진로 관련 학과 및 자격증 정보 등을 지원한다.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02-2144-8165

• 서비스 주소 <http://welfare.sports.or.kr/> •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방 권역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해당 권역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권역센터 현황

지역	주소	연락처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8 대원콤비프라자 203호	031.890.0220
충청	대전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72 홀리뷰빌딩 702호	042.365.0220
전라	광주시 북구 금남로 80 송강빌딩 7층	062.462.0220
경상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2층	051.914.0220
강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터워 1102호	031.823.2110

※ 지방권역센터 운영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WORLD UNIVERSITY



GAMES OF FISU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가 2019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다. 세계의 대학생들이 우호와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2년마다 주최하는 범세계적 대학운동경기인 유니버시아드.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의 인연을 맺으며 큰 관심을 모았다. 1997 전주·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대구광역시에서,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에 의한, 대학생들을 위한 대회

대학생들의 올림픽대회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 원래 명칭은 ‘University Olympiad’ 또는 ‘World University Games of FISU’이다. 1928년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 국제학생경기대회에서 시작되었으나, 1939년 제10회 빈대회를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동서간의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한때 중단되었다. 그 뒤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대회를 부활시키고 그 명칭을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University+Olympiad)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대회는 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하계대회와 동계대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현장은 ❶ 대학스포츠의 개발, ❷ 학생의 신체교육과 도덕교육, ❸ 각국 학생간의 긴밀한 교우와 국제대학스포츠의 단결을 위한 협력이 이 대회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최대의 선전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표하는 일, 세계의 학생을 위하여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일, 인류의 일반적인 발전요인으로서 아마추어스포츠의 이상을 수호하는 일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대표급 수준의 대학생 선수들 대거 참가

1980년대 이후부터 이 대회의 두드러진 추세는 ‘세계 대학생들의 잔치’라기보다는 국가대표급선수 간의 국가 간 대항으로서 참가인원과 질적인 면에서 대규모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한 아마추어 학생집단으로서 구성된 대회를 유지하면

서도 기록이나 경기력 면에서 어떤 세계대회와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올림픽대회로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 스포츠 발전의 견인차 역할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던 시절, 유니버시아드에서 올린 승전고는 스포츠팬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을 안겼다. 또한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큰 힘이 됐다.

우리나라는 1967년 동경유니버시아드 때부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매 대회마다 참가하여 점차 향상되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1967년 동경대회에서 여자농구는 체코슬로바키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에 이어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소련 등 동유럽 나라들이 불참하긴 했지만 동·하계 대회를 통틀어 한



국의 유니버시아드 첫 금메달이었고, 그 뒤 한국 여자농구가 세계무대에 이름을 떨치는 발판이 됐다. 또한 남자배구·남자농구·유도의 정삼현 외 6명이 7개 체급에서 은메달 9개 등 메달집계 11개를 기록하여 첫 번째의 정식참가를 종합 10위로 장식하였다.

이어 1979년에는 남자배구가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1985년 고베대회에서는 하형주 등 유도 3개 체급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5개를 획득하였으며, 1995년 후쿠오카대회에서는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메달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개최된 제 19회 대회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메달순위 9위를, 그리고 1999년 스페인 팔마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회에는 10종목에 105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3, 은메달 4, 동메달 9개로 메달순위 13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기량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구, 광주 개최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육상·농구·펜싱 등 13개 종목에 174개국 1만1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26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5개로 메달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육상·농구·수영 등 21개 종목에 17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로 메달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뜬 스타 선수들

유니버시아드는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황영조는 1991년 세필드대회에서 그해 2월 벡푸-오이타 대회에서 당시 한국 마라톤 최고 기록(2시간 8분 47초)을 세운 여세를 몰아 1위로 피니쉬 라인을 통과했다. 1958년 도쿄아시아 경기대회 우승(이창훈)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마라톤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통쾌한 승전보였다. 그리고 이듬해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예고편이었다.

1993년 버팔로대회는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탄생을 알리는

대회였다. 야구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지만 박찬호는 결승전이 벌어진 버팔로 바이슨스 구장에 몰린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6개월여 뒤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1979년 멕시코시티대회 결승 리그에서 쿠바, 일본과 물고물리는 접전 끝에 대회 첫 정상에 오른 남자 배구는 1995년 후쿠오카대회에서 신진식과 임도현, 김세진, 후인정 등이 맹활약해 16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섰다.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대회에서는 장병철과 석진웅, 최태웅 등이 중심이 돼 대회 2연속 우승에 성공했고 2003년 대구대회에서는 이경수와 신영수, 최태웅 등이 분전해 결승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그때 북한 여자 응원단이 한국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한 장면은 배구 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최근에 열린 2011년 중국 선전대회에서는 기보배(양궁)가 금메달을, 2013 카잔대회에서는 양학선(기체체조), 이용대(배드민턴) 등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고 한국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온 유니버시아드.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는 또 어떤 감동 스토리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전국 스포츠 대제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국내 최대의 스포츠 대제전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생동하는 전북의 꿈, 하나되는 한국의 힘”을 표어로 2018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익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전라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세계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등 24,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주경기장이 있는 익산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70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개최되었다.

다관왕 현황

구분	종목	부별	성명	소속	세부종목
3관왕	사격	남대	박대훈	동명대학교	공기권총(개인, 단체), 50m권총
	수영	남일	우하람	국민체육진흥공단	플랫폼다이빙, 싱크로다이빙3m, 스프링보드1m
2관왕	역도	여일	손영희	부산광역시체육회	합계75kg급이상, 용상75kg급이상
	육상	여고	이가은	부산체육고등학교	멀리뛰기, 세단뛰기
	체조	남고	손종혁	부산체육고등학교	제3경기(링, 도마)
	카누	남일	황민준	부산강서구청	k2-1000m, k4-1000m
	카누	남일	조정현	부산강서구청	k2-1000m, k4-1000m
	핀수영	남일	이동진	부산광역시체육회	표면100m, 표면50m

신기록 현황

종목	부별	성명	소속	세부종목	기록	비고
사격	남대	박대훈	동명대학교	공기권총-개인	243.2	대회신기록
	남대	부산선발	동명대학교	공기권총-단체	1,736.0	대회타이기록



종목별 종합성적

종합 순위	종목	득점	메달			제98회 대회		
			금	은	동	순위	득점	
1	세팍타크로	2172	3	0	0	1	1707	
	보디빌딩	140	3	1	0	2	120	
	바둑	110	1	0	1	12	0	
2	근대5종	1345	0	1	3	2	1918	
	배드민턴	1611	3	0	2	6	1283	
	요트	1975	1	1	1	4	1356	
3	사격	1645	4	3	5	2	1910	
	에어로빅	938	0	3	1	-	-	
4	댄스스포츠	320	1	0	0	3	390	
	탁구	1319	0	1	2	6	1250	
5	야구소프트볼	1089	1	0	0	4	1094	
	펜싱	1167	1	2	6	5	1420	
6	카누	998	2	2	0	9	932	
7	산악	272	0	0	1	4	351	
	스쿼시	755	0	0	1	8	631	
8	수상스키	0	0	0	0	6	0	
	씨름	782	1	2	1	6	919	
	우슈	669	0	1	1	12	346	
	정구	784	0	0	3	13	414	
	철인3종	404	0	0	0	10	378	
	력비	316	0	0	0	12	0	
9	유도	868	0	2	9	5	1309	
	조정	651	0	0	1	9	694	
	체조	563	2	1	1	5	1666	
	수영	경영/다이빙	1161	6	6	5	5	1259
		수구	0	0	0	11	0	
	육상	트랙	541	0	4	3	12	521
		필드	980	3	2	3	2	1291
	로드	475	1	0	0	9	538	
10	궁도	594	0	0	0	7	726	
	핀수영	706	2	2	2	4	1117	
11	레슬링	839	2	5	10	9	984	
	롤러	262	0	0	2	9	420	
	역도	506	2	2	4	9	913	
12	당구	177	1	0	0	8	217	
	배구	378	0	0	0	9	823	
	승마	519	0	0	0	6	736	
	태권도	925	1	4	4	10	918	
	테니스	646	0	0	2	6	1217	
13	검도	0	0	0	0	10	475	
	핸드볼	182	0	0	0	7	733	
14	골프	317	0	0	0	11	570	
	농구	208	0	0	0	7	937	
	복싱	611	0	1	5	14	472	
	볼링	322	0	1	2	12	482	
	자전거	508	0	1	2	12	635	
	하키	0	0	0	0	13	0	
15	양궁	255	1	0	1	13	557	
17	축구	0	0	0	0	17	157	

부산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42개, 은 48개, 동 84개 등 총 17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득점 32,005점을 기록하였다.

이번에는 배점이 높은 단체전에서 기대했던 메달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는 등 단체종목의 부진으로 부산선수단의 성적이 저조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자일반부의 동아대학교 야구부는 강릉영동대(강원)를 상대로 12대 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동아대학교 야구부의 이번 우승은 지난 1983년 제64회 대회 우승 이후 35년 만이기도 하였다.

부산선수단 총감독인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단체종목의 예상치 못한 부진으로 기대했던 수준의 성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서 “아쉽지만 지역체육의 체질개선을 위한 ‘한걸음 후퇴’라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취약 종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축제로 마무리된 폐회식

지난 10월 18일에 열린 폐회식에서는 “전북의 아름다운 산하, 다시 찾는 전북”을 모티브로 화려한 무대가 연출되었다. 공식행사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선수단 입장 후 성적발표, 종합 시상, 의장대 대회기 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차기 개최지인 서울시에 대회기를 전달하는 등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문화공연과 전라북도 교육감의 폐회선언으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모든 공식행사를 끝마쳤다.





2018 부산국제 철인3종 대회 블루오션컵

지난 10월 21일(일) 영도 해양대학교 일원에서 전국의 철인선수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부산국제 철인3종 대회 블루오션컵」이 개최되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철인3종경기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수영, 사이클, 달리기 3개 종목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이다. 이날 대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영도 앞바다를 가르는 수영을 시작으로 자전거, 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코스는 수영으로 출발하여 지정된 제1 바꿈터에서 사이클로 전환하여 정해진 코스를 마친 뒤 다시 제2 바꿈터에서 달리기로 전환하여 결승선에 도착하는 대로 순위를 가리게 되었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종목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거리에 따라 스프린트 코스, 인터내셔널, 올림픽 코스, O2 코스와 O3 코스, 철인 코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블루오션컵」은 올림픽 코스 방법으로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영도에서 2018 부산국제 철인3종 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스포츠의 도시 부산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철인3종경기 코스별 종류

코스	종목		
	수영	사이클	달리기
스프린트	0.3~1Km	8~25Km	1.5~5Km
인터내셔널	1~2Km	25~50Km	5~10Km
롱	2~4Km	50~100Km	10~30Km
철인	3.9Km	180.2Km	42.195Km
올림픽	1.5Km	40Km	10Km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철인3종경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로 땀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철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스포츠 종목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경기결과

남자 개인전

남자 2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6	조봉우	부산펠트	26	02:14:37	
2	4	김의영	경성대학교	22	02:26:41	
3	2	김동해	개인	20	02:28:02	

남자 30세 ~ 34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15	안태환	펠트부산	31	02:11:38	
2	13	양정환	세종철인클럽	31	02:14:04	
3	12	김대훈	휘폴MK수영클럽	30	02:24:12	

남자 35세 ~ 3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34	정원석	울산트라이 애슬론클럽	37	02:08:30	
2	42	위신욱	재미로철인클럽	39	02:25:30	
3	228	김환준	창원철인클럽 (손유성)	38	02:25:43	

남자 40세 ~ 44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57	황석수	경남	41	02:09:29	
2	56	백승한	울산트라이 애슬론클럽	41	02:12:39	
3	49	함영호	YODA	40	02:13:27	

남자 45 ~ 4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75	김정규	대구철인클럽	46	02:05:10	
2	239	서종진	창원철인클럽 (손유성)	49	02:17:20	
3	86	오일환	울산트라이 애슬론클럽	48	02:17:41	

남자 50세 ~ 54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100	노경호	거제 철인	50	02:18:21	
2	98	박철우	365철인클럽B	50	02:22:52	
3	230	박생환	창원철인클럽 (손유성)	53	02:23:37	



남자 55세 ~ 5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227	손유성	창원철인클럽(손유성)	56	02:12:04	
2	119	조정현	창원철인클럽	55	02:14:38	
3	249	백호산	부산철인3종클럽	56	02:19:37	

남자 60세 이상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229	박병섭	창원철인클럽(손유성)	60	02:23:05	
2	244	조규관	부산철인3종클럽	60	02:28:37	
3	131	전우경	영주철인클럽	62	02:36:30	

여자 개인전

여자 3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133	김유지	부산펠트	26	02:19:43	
2	135	김지영	울산트라이 애슬론클럽	36	02:39:15	
3	136	마은희	광주철인클럽	39	02:46:45	

여자 49세 이하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139	이영주	365철인클럽B	42	02:34:43	
2	140	잉어 (Inge Ross)	-	43	02:37:15	
3	143	이하경	대구철인클럽	45	02:41:55	

여자 50세 이상						
순위	번호	이름	소속클럽	나이	시간	비고
1	248	범명숙	부산철인3종클럽	50	02:40:21	
2	146	김춘화	제주스코리아팀	52	02:46:11	
3	99	김정숙	대구철인클럽	50	02:49:01	

클럽대항전

클럽대항전			
순위	소속클럽	순위	소속클럽
1	창원철인클럽(손유성)	5	대구철인클럽
2	부산철인3종클럽		부산펠트
3	울산트라이애슬론클럽	7	진주철인클럽
	365철인클럽	8	수영in부산 철인3종팀

부산시민들의 생활체육 축제 한마당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3일 (토)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13개 경기장에서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체육대회는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등 15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당구)에 4,0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16개 구군으로 나뉘 경기를 펼쳤으며, 검도를 비롯해 부산시민 누구나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민이 함께 참가하는 축제 한마당

오전 9시 30분에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은 16개 구·군 선수단 및 슈퍼컵 선수단의 입장과 개식통고, 개회선언, 선서, 부산찬가 합창 순으로 막을 올렸다. 선수단 입장에는 취타대, 대회피켓, 체육회기, 구·군 체육회기, 회원종목단체기, 구·군별 선수단이 입장 퍼레이드를 펼치며 각각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차례대로 입장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등 많은 내빈들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대회를 빛냈다.

개회식 종료 후 본격적인 경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종목별 경기장으로 이동하여 펼쳐졌으며 경기방식은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종료 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종합시상, 경품추첨, 폐식통고로 대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날 경기력상은 부산진구체육회가 수상하였으며 성취상은 북구체육회가 수상하였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한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부산체육 발전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부산시민체육대회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간의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민체육대회는 개인보다는 팀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라는 점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소속감을 비롯한 동료 간의 우정이 있기에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참가한 이번 대회의 가치는 더욱더 값질 수밖에 없다.



종합시상 내역

구분	시상내역
경기력상	부산진구
성취상	북구
경기운영상(2개)	그라운드골프, 족구
질서상	사상구, 수영구, 동구
화합상	강서구, 해운대구, 남구
스포츠7330 진흥상(8개)	중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종목별 경기결과

종목	순위	1위	2위	3위	장려
검도		해운대	강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게이트볼		사하구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국학기공		부산진구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
그라운드골프		북구	사상구	남구	금정구
배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배드민턴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볼링		서구	연제구	북구, 기장군	
족구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동래구	
줄넘기		금정구	사상구	남구	동래구
체조		사상구	북 구	해운대구	수영구
축구		사상구	기장군	영도구, 남구	
탁구		사상구	북구	수영구,연제구	
태권도		기장군	영도구	사하구	서구
테니스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북구	
파크골프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당구		중구	해운대구	연제구	남구



오늘 만나는 내일의 부산 스포츠의 비전 2018 부산체육 세미나

오늘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8 부산체육 세미나를 통해 내일의 부산 스포츠의 비전을 들어보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18 부산체육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수) 15시부터 부산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영상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장, 구·군 체육회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지도자 외에도 체육 관련 학과 재학생,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오늘 만나는 내일의 부산 스포츠의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어디서나 함께하는 스포츠, 참가자가 즐거운 스포츠, 공정하고 당당한 스포츠 비전을 가지고 양방향 토론형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전문방송 아나운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 비전 토론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안창규 교수, 동아대학교 박현태 교수, 부경대학교 김태규 교수가 열린 토론을 펼쳤다.

본격적인 세미나가 개최되기 이전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체육의 미래를 그려보고 어떻게 공감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또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 정권철 과장은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매년 개최되는 부산체육 세미나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체육 세미나는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왔으며 앞으로도 부산체육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부산체육의 비전을 펼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육상 꿈나무들의 한마당 제7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챌린지 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0일(토) 구 덕운동장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300여 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육상종목의 저변확산 및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7회 부산 초·중학생 육상챌린지대회」를 개최하였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모든 스포츠의 근간으로 꼽히는 육상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을 활용해서 만든 종목이다. 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함양을 위해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의 대열에 들었지만, 유독 육상종목에 있어서 깊은 침체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2012년부터 육상챌린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육상챌린지대회를 통해 육상종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육상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기량에 맞추어 트랙경기(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허들)와 필드경기(멀리뛰기, 볼텍스 던지기, 터보자브 던지기)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어린 꿈나무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육상챌린지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또한 협동과 배려로 스포츠 정신을 기르는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선의의 경쟁으로 우정과 도전정신에 대한 참 뜻을 깨닫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며 서로를 배려하는 미덕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터보자브
던지기

육상 경기란?

육상 경기는 트랙과 필드 및 로드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의 총칭으로,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이다. 그러므로 육상 경기는 모든 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종목 수만 해도 약 30종목에 달하며 크게는 트랙 경기(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와 필드 경기(도약, 투척) 및 로드레이스(하프마라톤, 마라톤)로 구분할 수 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5일(월) 15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0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산선수단은 선수 및 임원 등 1,542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42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84개로 총득점 32,005점을 획득하였다.

이날 해단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차기대회 대비책 보고와 종합 우승(세팍타크로, 보디빌딩, 바둑), 종합 2위(근대5종, 배드민턴, 요트), 종합 3위(에어로빅, 사격)를 차지한 8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상과 종합점수가 전년 대비 500점 이상 향상된 1개 회원종목단체(요트)에 성취상을 수여했다. 또한 금년 체육대회에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선전 분투하여 상위 입상의 건인 역할을 한 단체장(6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하였으며, 지도자(6명) 및 선수(5명)에게 감투상을, 부산선수단 중 최고의 성적을 이룬 단체(동아대학교 야구팀)와 선수(동명대학교 사격 박대훈)에게 최우수상을 시상하였다. 이 밖에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단체장(부산도시가스 김영광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부산시민 건강증진 및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케이블방송 3사 업무협약식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케이블방송 3사(CJ헬로방송, 티브로드방송, 현대HCN방송)가 뜻깊은 첫 만남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월)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방송, 티브로드방송, 현대HCN방송 3사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강명환 CJ헬로 부산경남 총괄대표, 이동열 티브로드 부산방송 대표, 류성택 현대HCN 부산방송 대표 및 부산케이블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각종 대회와 행사 등의 자료제공과 취재를 협조하고 부산케이블방송 3사는 부산지역 각종 대회와 행사 등을 뉴스와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체육을 방영하여 지역채널로서의 공공성과 밀착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민에게 체육을 홍보하여 더욱 다변화하는 부산체육을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체육회와 부산케이블방송 3사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체육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역할로, 부산시민을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 만들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을 통해 전문체육을 육성하여 미래의 희망인 유아부터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회원종목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다.”고 전했다.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 2018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 기부금 전달식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난 11일 30일(금) 부산시청에서 부산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올바른 스포츠 문화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체육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금은 지난 4월 개최된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 마라톤대회'의 참가비 일부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디다스는 2014년부터 매년 체육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중 1억 원을 기부했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을 통해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스포츠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부산 시민들에게는 보다 즐겁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클럽대항전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4일(수) 18시 농심호텔에서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 종목별 예선리그·본선대회를 거쳐 입상한 동호인클럽(7개 종목, 28개 클럽)과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한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시상식은 성적보고, 입상클럽 시상,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주최, 회원종목단체 주관, 부산광역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클럽대항전으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종목이 선정되었다. 선정종목은 검도, 그라운드골프, 배구, 볼링, 야구, 족구, 탁구 등 7개 종목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760개 클럽, 2만 명이 참가하여 매주 주말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열린 경쟁을 통해 예선리그를 진행하였고, 11월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슈퍼컵」종목별 본선대회(4강)를 통해 최종 우수클럽을 가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앞으로 선진국형 생활체육 클럽 활성화를 위해 주말 리그인 슈퍼컵 참가 종목을 점차 늘려, 시민건강 증진 및 동호인 클럽 저변확대와 함께 더욱더 활성화된 슈퍼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슈퍼컵 대회 결과	구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검도	신성대검도교실A	세인검도관	청무검도관, 신성대검도교실B
	그라운드골프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배구	발리원	동부배사미	비전, 배사미
	볼링	더히트	사람과 사람들	일체회, 다이내믹
	야구	삼육블랙빈	슈퍼노바	엠나인, 칸
	족구	더이스트	일등코리아	웰메이드, 버팔로
	탁구	홍연호클럽	신도시클럽	텐울클럽, 문현탁구클럽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9월 13일(목) 부산경남 경마공원 렛츠런 파크에서 가을소풍을 개최하였다. 동물원을 견학하며 소중한 경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난 10월 20일(토) 2019년도 원아모집 공개추첨을 실시하였다. 수영 및 예체능 수업으로 타 유치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으며 재원생을 포함하여 2019년도 단원 85명으로 모집을 마감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8일(일)에는 한마음가족운동회를 개최하여 단원 및 가족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며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02 부산국민체육센터 직원들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하다

지난 10월 17일(수) 부산국민체육센터 정문 앞에서 50대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다. 마침 현장에 있던 부산국민체육센터 관장이 이를 목격하여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수영 지도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제세동기를 사용한 전기충격을 가해 환자의 심박을 돌아오게 했다. 신속한 직원들의 대처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응급처치가 되어 환자는 후유증 없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자체 심폐소생술 교육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분기별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한 교육을 진행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 화재진압 및 대피, 소방훈련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25일(목) 화재진압 및 대피 소방 훈련을 전 직원 및 체능단 전 단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의 훈련으로 비상 시 각자의 담당 분야로 나누어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C반 월~금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청소년 이상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금	성 인 67,100	청소년 이상
08:00~08:50		B반 월~금	노 인 52,800 청소년 1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여성
10:00~10:50	웰빙수영 (격일)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11:00~11:50	웰빙수영 (매일)	C반 월~금	성 인 67,100 노 인 52,800	성인 여성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실버수영		화.목(토) 44,000	65세 이상만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누구나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	7세~초4년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39,600 33,000	초1~6년
18:00~18:50	직장인수영 (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누구나
19:00~19:50	직장인수영 (매일)	C반	성 인 67,100 청소년 60,500	청소년 이상
20:00~20:50		D반 월~금	노 인 52,800	
21:00~21:50	아간수영		성 인 67,100 노 인 52,800	성인 누구나
15:00~15:50	주말수영 (배영이상)	토	25,000	초2~6년
12:00~12: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 인 60,500 노 인 52,800	성인 여성
15:00~15:50		B반 화.목(토)		
12:00~12:50		C반 월.수.금		
13:00~13:50		D반 화.목.토		
13:00~13:50		F반 월.수.금	45,000	성인 누구나
18:00~18:50		E반 화.목(토)		
06:00~07:00	월	A반	성 인 53,900 노 인 33,000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08:00~09:00		B반		
10:00~11:00		C반		
17:00~18:00		E반		
19:00~20:00	자유수영	F반		

요가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D반 월.수.금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3일반 성 인 50,600 노 인 38,500 청소년 45,100		
11:00~11:50	B반 화.목				
	C반 월.수.금				
14:00~14:5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15:10~16:00		B반 화.목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17:10~18:00		B반 화.목			
	C반 월.수.금				
19:00~19:5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C반 월.수.금			

생활체육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22:00 토 18:50까지	헬스클럽		월 ~ 토	성 인 47,300 노 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배드민턴	A반	월 ~ 목 (강습) 금 (자유)	성 인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08:00~08:50		C반			
09:00~09:50		D반			
10:00~10:50		E반			
18:00~18:50		I반			
19:00~19:50		J반			
20:00~20:50		K반			
21:00~21:50	탁구	L반	월 ~ 목 (강습) 금(자유)	성 인 41,800 노 인 38,500	성인 이상
18:00~18:50		A반			
19:00~19:50		B반			
20:00~20:50	어린이배드민턴	C반	월.수.금 화.목	38,500 33,000	초3~6년 초1~6년
16:00~16:50					
17:00~17:50	농구	A반	월.수.금	초 인 38,500 청소년 44,000	초4년~중학
		B반			
06:30~07:2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50,600 청소년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09:00~09:50		C반	화.목.토		
09:00~09:50		G반	월.수.금		
10:00~10:50		D반	화.목.토		
14:00~14:50		F반	월.수.금		
15:00~15:50		I반	월.수.금		
19:00~19:50		H반	월.수.금		
20:00~20:50		A반	월.수.금		
21:00~21:50		E반	월.수.금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	7세~초3년
16:00~16:50	발레		화.목	33,000	5세~7세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	초등학생
17:00~17:50	어린이발리댄스		월.수.금	38,500	7세~초등생
10:00~10:50	에어로빅	A반	월.수.금	50,600	성인 누구나
18:00~18:50		B반	월 ~ 금	51,700	
16:00~16:50	발리댄스 준바		월.수.금	성 인 50,600 노 인 38,500	성인 누구나
19:00~19:50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성 인 39,600 노 인 38,500	성인 누구나
20:00~21:30		중급	화.목	성 인 44,000 노 인 38,500	

문화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14:00~14:50	속독논술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바둑	A반	토	초1~초6
15:00~15:50		B반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유치부
16:10~17:00		B반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01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수험표 들고 스트레스 팡팡, 체력UP

부산북구스포츠클럽(북구국민체육센터)은 수능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5일(목)부터 오는 12월 31일(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요가,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에게 이용료의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북구스포츠클럽(☎ 051-365-7070)으로 하면 된다.



02 부산북구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 성료

지난 10월 27일(토) 북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150여 명의 클럽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초등부와 성인부로 이뤄진 이번 대회에는 휴일을 맞아 수영장을 찾은 부모들이 자녀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자녀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 여기저기에서 흐뭇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의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개방형 스포츠클럽으로서 지역인들의 건강증진과 우수선수 육성 및 발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03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 개최

북구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2018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 부산광역시 북구 대표로 참가할 참가자를 찾기 위한 지역 예선을 11월 한 달간 북구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 중 상위 득점한 시민은 구 대표로 12월 8일(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체력왕 순위결정전에 참가하게 된다.

체력왕 순위결정 본선대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nfa.kspo.or.kr>) 또는 북구체력인증센터(☎ 051-362-7008)로 하면 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0 수영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초급	주2회 주3회 주5회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08:50	초급	주2회 주3회 주5회
		중급	
		고급	
		연수	
돌고래	09:00~09: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10:50	초급	중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11:50	초급	고급(25명)
		중/고급	
		연수	
		초급	
거북이	15:00~15:50	성인조합	연수(40명)
	17:00~17:50	성인조합	
굿나잇	19:00~19:50	초급	
		중/고급	
		연수	
		초급	
		중급	
		고급	
	20:00~20:50	초급	
		중급	
		고급	
	21:00~21:50	초급	
		중급	
		고급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0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14:00~14:50	중급	80명

0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 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중급(30명) 고급(30명) 연수(30명)
	14:00~14:50	어린이종합반	
		유아(월, 수, 금)	
		초급	
	17:00~17:50	중급	
		고급	
		초급	
	18:00~18:50	중급	

0 주말 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0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0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타바타(월, 수, 금)	06:00~06:50	25명	성인 50,000원
타바타(화, 목)	06:00~06:50		성인 40,000원
요가(월~금)	07:00~07:50		성인 57,000원
	19:00~19:50		청소년 50,000원
줌바로빅(월, 수, 금)	09:00~09:50		성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화, 목)	09:00~09:50		성인 42,000원
파워로빅(월~금)	10:00~10:50		성인 57,000원
	11:00~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0:00~20:50		성인 57,000원
	21:00~21:50		청소년 50,000원

0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0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금)	12:00~12:50	30명	30,000원
	15:00~15:50	30명	30,000원
	16:00~16:50	30명	30,000원

0 헬스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21:50	성인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청소년 41,000원

0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0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
센터 접수기간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정기휴관	기존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문의전화	매주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TEL	051-365-7070
	FAX	051-365-8070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01 중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8일(일) 광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외 10개소에서 「2018 중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 후 11개 종목(검도,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당구, 댄스스포츠, 농구, 어울림바둑, 족구) 경기 장소로 이동하여 동시에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는 중구민 모두가 함께 참가하는 대회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체육회

01 2018 서구민생활체육대회

지난 10월 7일(일) 구덕운동장 외 6개소에서 서구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축구, 게이트볼, 탁구,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6개 종목에 1,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02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 참가

지난 10월 19일(금)부터 10월 21일(일) 3일간 송도해수욕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가 개최되었다. “고등어”를 테마로 한 체험과 투어,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일요일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걷기대회도 개최되었다.



영도구체육회

01 다문화가정 체육지원 패밀리데이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9월 1일(토)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다문화가정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체육지원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02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4일(일) 동일중앙초등학교에서 동구 관내 체육인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 치어리더, 국학기공 동호인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생활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으며 개회식 이후 종목별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구 주민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체육회

01 제10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9월 9일(일) 영도마린축구장과 영도환경시설사업소에서 관내 초등학교 8개교(청학초, 태종대초, 대평초, 남향초, 봉학초, 상리초, 신선초, 청동초)와 5개 중학교(동삼중, 영도중, 신선중, 영선중, 해동중) 유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초등부에서는 1위 청학초등학교, 2위 청동초등학교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학부에서는 1위 동삼중학교, 2위 영선중학교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서 각 학교 대표선수들은 팀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며 그동안 다져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고, 내빈들 또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02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9월 3일(월) 영도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 수석부회장, 대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장 선임(안)과 임원 선임(안) 및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총회 이후에는 기념촬영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03 제38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8일(일) 광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및 내빈 2,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종목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검도, 볼링, 배드민턴, 정구, 파크골프 등 8개 종목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으로 자신감을 더했다. 대회종료 후에는 동호인 간 단합을 다지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01 제11회 부산진구 골드울동경연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화)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부산진구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부산진구 골드울동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 선수들은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지만 젊은 세대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쳐났다. 대회 결과, 대상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부설 노인대학, 최우수상 한마음 댄스스포츠 동호회, 우수상 부산진구체조협회(김옥수 무용단)/황령산 한마음회, 장려상 웃음건강교실(당감동 주민센터)/늘사랑 동호회/연지동호회/개금종합사회 복지관/가야공원 엄광체육회/청춘팀/가야동 주민센터팀이 입상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불어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02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1일(일) 4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2018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코스 중간 중간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미션 수행지가 있고, 백양교(반환점)에서는 경품권을 투여할 수 있는 경품함이 구비되어 있어 모두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군체육회 소식

03 부산진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7일(토) 연양 자수정 동굴나라에서 50여 명의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이 참가하여 「2018 부산진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자수정 동굴관람, 필리핀 기예 서커스 공연 관람, 지하 동굴 수로탐험, 보트 탑승체험 및 자유시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참가한 가족들은 “바쁜 일상 속에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01 제15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개최

지난 9월 9일(일) 석대구청장에서 150여 명의 족구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족구동호인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부문별 성적으로는 관내1부에 1위 버팔로C, 2위 버팔로B, 3위 안락B팀이 관내2부에는 1위 일월, 2위 온사, 3위 안락A 그리고 취미부에는 1위 안락, 2위 경동, 3위 한마음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족구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02 제28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10월 20일(토) 사직실내테니스장에서 5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8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금배에서 1위 부산반도, 2위 수안이 차지하였고, 은배에서는 1위 금화, 2위 팀아제리가 차지하였으며, 동배조(A)에서는 1위 범아(청), 2위 금화, 3위 똥s가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배조(B)에서는 명장이 1위를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03 제14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토) 사직보조경기장에서 150여 명의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배구 동호인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자부 1위 배짱A, 2위 신기, 3위 배짱B, 여자부 1위 동래, 2위 매화B, 3위 금강, 4위 나인플러스, 5위 매화A가 차지하였다.



01 제4회 남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9월 2일(일)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초등부 4개팀, 중학부 9개팀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남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학교 대표선수들은 팀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며 저마다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고, 내빈들 또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대회결과 초등부 1위 문현초, 2위 대연초, 중학부 1위 용문중, 2위 해연중, 공동 3위 김만중, 성동중이 차지하였다.



02 2018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9월 16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외 4개소에서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야구, 축구, 축구, 탁구, 테니스 등 10개 종목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2018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동호인들은 그동안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다져온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03 제34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3일(토) 옹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2,500여 명의 남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34회 오륙도 사랑걷기축제」를 개최하였다.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하여 이기대 순환도로를 따라 백운포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6.5km 구간을 아름다운 이기대 절경과 함께 발맞춰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코스 중간 중간 열리는 버스킹 공연이 걷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는 체성분 분석과 국민체력100 부스를 통해 건강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걷기축제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의 건강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01 북구 테니스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10월 14일(일) 화명생태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북구 테니스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금배부 우승팀 불나비, 준우승팀 강산, 우수선수로는 불나비 팀 정영관 선수가 선정되었다. 은배부 우승팀 강산, 준우승팀 수정강변, 우수선수로는 강산 팀 류병렬 선수가 선정되었다. 동배부 우승팀 하늘채, 준우승팀 카이저, 우수선수로는 하늘채 팀 임해식 선수가 선정되었다.



02 북구 축구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일) 화명생태공원 축구경기장에서 4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북구 축구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청년부 1위 만덕축구, 2위 화명, 장년부 1위 구포2, 2위는 화명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03 북구 게이트볼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10월 31일(수) 화명생태공원 게이트볼경기장에서 7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북구 게이트볼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1위 수정1팀, 2위 수정2팀이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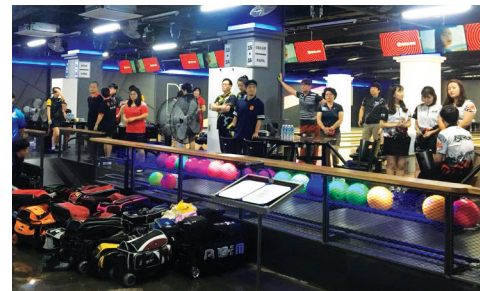
01 제22회 해운대구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11월 4일(일) 장산 배수지 코트에서 「제22회 해운대구 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금배 1위 우리들, 2위 솔, 3위 벽산2차, 은배 1위 장산, 2위 마리나2차, 3위 센텀파크, 동배 1위 명문, 2위 동남, 3위 한우리, 삼호가든이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동호인 간의 상호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02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볼링대회 개최

지난 11월 11일(일) KNN 방송국 내 볼원볼링장에서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1위 이종대, 2위 윤병철, 3위 하영숙, 4위 정복희, 5위 임호림 선수가 차지하였다.



03 제3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스쿼시대회 개최

지난 11월 11일(일)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내 스쿼시코트에서 「제3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스쿼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여자 새내기부 1위 김지후(해교), 2위 문보미(해교), 3위 백아인(피닉스), 남자 새내기부 1위 노새결(피닉스), 2위 신준호(해교), 3위 황진욱(해교)가 차지하였다. 여자복식 1위 전은주-김선희(연합팀), 2위 강민경-김일경(해교), 3위 강인숙-박영희(연합팀), 남자복식 1위 차성진-안용우(피닉스), 2위 주영길-김동영(피닉스), 3위 이상범-최종길(피닉스), 혼합복식 1위 주영길-전은주(연합팀), 2위 이동걸-백분경(연합팀), 3위 림-강민경(연합팀)이 차지하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하구체육회

01 제7회 사하구청장배 스쿼시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일) 동주대학교에서 「제7회 사하구청장배 스쿼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동호인과 내빈들을 포함한 100여 명이 대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대회결과 혼합 1위 대쉬클럽, 혼합 2위 블랙볼클럽, 혼합 3위 동원스쿼시클럽이 차지하였다.



02 제2회 사하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5일(월) 「제2회 사하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삼락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모인 80여 명의 동호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결과 남자부 1위 최승환, 2위 박준상, 3위 하영완 동호인이 차지하였고, 여자부 1위 이순분, 2위 강정숙, 3위 류순자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03 제15회 사하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사하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동호인 1,000여 명과 동호인을 응원하러 온 학부모, 그리고 내빈들이 참가하여 대회식을 빛내었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당리태권도, 품새부문 1위는 신평태권도, 2위 부영태권도, 3위는 마스터진태권도가 차지하였다. 겨루기부문 1위는 백운태권도, 2위 한호태권도, 3위는 도건태권도, 태권체조경연부문 1위는 한겨레태권도, 2위 MAD태권도, 3위 신평태권도가 차지하였다. 비록 어린 동호인들의 태권도대회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선보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강서구체육회

01 제8회 금정구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10월 31일(수) 금정구 수영강변게이트볼장에서 「제8회 금정구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어르신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젊은이들 못지 않게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의 경기가 눈길을 끌었다. 대회결과 1위 공덕산클럽, 2위 구월산클럽, 3위 한신클럽2조가 차지하였다.



02 제30회 금정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선동잔디구장 외 2개소에서 「제30회 금정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많은 동호인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여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회결과 직장부 1위 교통공사, 2위 스마일이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김근태(교통공사), 우수선수-김용철(스마일)이 차지하였다. 지역부 1위 남산축구회, 2위 두실축구회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배정문(남산), 우수선수-김용철(스마일)이 차지하였다.



03 제11회 금정구청장배 축구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스포원축구장에서 「제11회 금정구청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대회결과 일반2부에서 1위 웰메이드, 2위 형우, 공동 3위 S&T모티브, 상신이 차지하였으며 일반3부에서 1위 히어로, 2위 형우, 공동 3위 금샘, 정관에이스가 차지하였다. 일반4부에서 1위 정관탑, 2위 증산A, 공동 3위 비케이B, 스텔스JC가 차지하였으며, 금정관내부에서 1위 금정청소년, 2위 S&T모티브, 공동 3위 스카이A, 금샘A가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강서구체육회

01 제1회 두르드 강서 Slow 자전거축제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9일(화) 「제1회 두르드 강서 Slow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였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저생태공원에 모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특히 다양하게 마련된 경품행사로 행운의 당첨까지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02 2018 강서구청장기 (초·중학부)축구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0일(토) 오전 9시에 명지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에서 「2018 강서구청장기 (초·중학부)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6팀, 중학교 6팀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부 1위는 명호초등학교, 중학부 1위는 명호중학교가 차지하였다. 우승팀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우승기를 흔들며 자축하고, 팀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03 제1회 강서구청소년 클럽대항 길거리(3:3)농구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9일(금) 낙동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강서구청소년 클럽대항 길거리(3:3)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학생 선수들의 젊은 패기와 응원단의 열띤 함성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총 18개 팀이 참가해 승패를 겨룬 결과 1위 신호중C팀, 2위 신호중A팀, 공동 3위 낙동2팀, 팀요한이 차지하였다.



연제구체육회

01 제23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9월 30일(일) 연제구민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과 부산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제23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1위 거제 3동, 2위 연산 9동, 공동 3위 연산 2동, 연산 3동, 최우수선수상은 거제 3동 박태홍 선수가 수상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02 제17회 연제구배드민턴 협회장기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1일(일) 배드민턴협회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원 주경기장에서 「제17회 연제구배드민턴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회장기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결과 1위 연산클럽, 2위 연제클럽, 3위 연산클럽이 차지하였다.



03 제12회 연제구협회장배 및 XIOM배 탁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사직 실내체육관 보조A, B구장에서 14클럽 4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제12회 연제구협회장배 및 XIOM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남자단체전 공동 1위 핫팅-B클럽, T-TIME클럽, 여자단체전 공동우승 연제탁구클럽, 동그라미-A클럽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수영구체육회

01 2018 하반기구청장배 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9월 16일(일) 수영구민센터에서 수영구체육회장 및 많은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 하반기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6개 종목(국학기공, 그라운드 골프, 탁구, 테니스, 태권, 축구)의 동호인들은 개회식 후 종목별 지정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900여 명의 수영구민들이 모여 종목별 동호인 간의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영구의 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준 동호인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여 많은 동호인들의 축하를 받기도 하였다.



02 2018 수영구청장배 유소년 비치사커(Beach Soccer)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4일(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영구청장배 유소년 비치사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유소년, 지도자, 학부모를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즐겨하는 유소년들이 각자의 실력을 보여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중학부에서는 수영중학교가, 초등부에서는 광남초등학교가 1위를 차지하였다.



03 2018 수영구민과 함께하는 갈맷길 걷기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오전 9시부터 광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안리해수욕장 → 수변공원 → 갈맷길 → 망미동 고려제강까지 약 6km의 코스로 수영구청장 및 많은 내빈, 수영구민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수영구민과 함께하는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아름다운 광안리 해수욕장을 지나서 가을의 경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갈맷길을 통해 단풍나무를 보고 가족과 연인 또는 친구들과 모여 가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도착 지점인 고려제강 야외무대에서는 태권도, 음악 공연과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경품추첨이 이어졌으며 1등에 당첨되기 위한 수영구민들의 간절함이 대회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경품에 당첨되지 못한 수영구민들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회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상구체육회

01 2018 사상 수상레포츠한마당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9월 15일(토)부터 16일(일) 양일간 총 2,000여 명의 사상구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락생태공원 수관교에서 「2018 사상 수상레포츠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삼락생태공원 낙동강을 활용하여 사상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 체험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레포츠(SUP:Stand Up Paddle, 카약, 래프팅, 모터보트 등)와 체험부스 운영 및 에어바운스와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02 2018 사상구청장기 볼링대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8일(일) 반도볼링장에서 「2018 사상구청장기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38개 클럽 총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오갔다. 평소 동호인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이론적 지식과 실전 기술을 동호인들과 함께 나누며 경기력을 향상시켰으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룬 끝에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단체전 3위는 바람과구름 클럽, 2위는 창공 클럽, 단체전 1위는 we 2030 클럽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개인전 3위는 아그리나 클럽의 이광용 선수, 2위는 바람과구름 클럽의 심재영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개인전 1위는 we 2030 클럽의 이동열 선수가 차지하였다.



03 제15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다누림센터 4층 체육관에서 「제15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20개 팀 250명이 참가하였고 동호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남자부 단체전에서는 하나A(남)클럽과 주례력키B클럽이 3위에 올랐고 2위는 우정B클럽, 그리고 스마트A클럽이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스마트B클럽과 서해용A클럽이 3위, 하나A(여)클럽이 2위, TNT클럽이 1위를 차지하였다. 남자부 개인단식에서는 주례력키클럽의 김정진 선수와 우정2클럽의 박중근 선수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펜타클럽의 한동욱 선수가 2위, 스마트클럽의 정경호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다. 여자부 개인단식에서는 우정2클럽의 카니 선수와 스마트2클럽의 김미숙 선수가 3위, 스마트4팀의 김정옥 선수가 2위를, 일반A팀의 노경민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클럽의 황종인 선수와 우동탁클럽의 허계정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구·군체육회 소식

기장군체육회

01 2018 기장군 야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10월 21일(일) 드림볼파크에서 500여 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기장군 야구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야구동호인들은 사회 유대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02 2018 기장군 족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10월 21일(일) 기장국민체육센터 족구장에서 「2018 기장군 족구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족구동호인들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한 동호인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03 정관군민 걷기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일) 정관 중앙공원 및 좌광천 달음고 일원에서 3,000여 명의 정관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관군민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주말을 이용하여 열린 이번 걷기대회는 가족 간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바둑협회 > 제2회 렛츠런파크배 부산·울산·경남 어린이바둑대회

부산광역시바둑협회는 지난 9월 30일(일) 「제2회 렛츠런파크배 부산·울산·경남 어린이 바둑대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호스아일랜드)에서 개최하였다. 대회는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경기결과

순위	유단자부		여학생부		고학년부		중학년부		저학년부	
우승	김성재	가고파초6 (경남)	김승주	가남초4 (경남)	하영찬	무정초5 (부산)	김범찬	신곡초3 (부산)	이선우	남운초2 (부산)
준우승	노희승	좌산초6 (부산)	박시은	해송초3 (부산)	박주혁	인지초5 (부산)	장원준	삼랑초3 (경남)	조우민	신곡초2 (부산)
공동 3위	한승헌	증산초4 (경남)	백부경	연암초5 (울산)	김승민	평산초5 (경남)	정유준	위목초4 (경남)	황찬희	아림초1 (경남)
	김민수	신진초5 (경남)	신채희	모전초4 (부산)	강경묵	외동초5 (경남)	김도현	가동초3 (부산)	장상명	삼랑초2 (경남)

양궁협회 > 2018년 부산광역시양궁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양궁대회

부산광역시양궁협회는 지난 11월 10일(토) 강서양궁장에서 「2018년 부산광역시양궁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양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양궁의 저변확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산시양궁협회가 강서양궁클럽 동호인들과 함께 6개월간 알차게 준비해 온 행사였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호회 활동을 해온 일반인 1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조정협회 > 제2회 부산광역시 조정협회장배 비치조정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조정협회는 지난 11월 4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조정협회장배 비치조정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비치조정(코스드포어 : 4+), 실내조정 : 개인전, 단체전(4인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의식이 증대되었으며 조정 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이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킥복싱협회 > 제4회 부산킥복싱협회장기 대회 및 빈곤가정 아동 돕기 킥복싱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는 지난 11월 3일(토) 동래 태산체육관 특설링에서 「제4회 부산 킥복싱협회장기 대회 및 빈곤가정 아동 돕기 킥복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 150여 명이 참가하여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관전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부산킥복싱협회장기 대회는 선수들의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터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동호인, 선수, 지도자, 임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도 하였다. 부대 행사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빈곤아동에게 킥복싱인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피구연맹

> 2018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은 지난 9월 8일(토)부터 9월 16일(일)까지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에서 「2018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87개 학교 1,515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4일 동안 예선본선경기를 치렀으며 초등 남자부 오션초등학교, 여자부 오션초등학교, 중학 남자부 명호중학교, 여자부 거제여자중학교, 고등 여자부 성모여자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참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실 밖에서의 활동적이고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며 피구가 학교체육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제4회 아시안컵 및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피구대회 준우승 쾌거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은 지난 10월 20일(토)부터 21일(일) 양일간 전남 장흥에서 개최한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피구대회에 부산진구스포츠클럽팀을 이끌고 참가하였다. 이날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피구팀은 여중부 전국 2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함께 개최된 아시안컵 피구대회를 관람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피구 경기 모습을 거울삼아 더 큰 발전을 위해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선전

부산광역시피구연맹 학교스포츠클럽팀은 지난 11월 10일(토)부터 11일(일) 양일간 충북 충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지난 9월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피구대회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우승팀을 이끌고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산은 피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남초부 2위 오션초, 여초부 2위 오션초, 남중부 3위 명호중, 여고부 3위 성모여고가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오션초등학교와 명호중학교는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며 전국에 모범을 보였다.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01 임지현 교수(전 국가대표) 초청 스타 서포터즈 강습회 개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10월 5일(금) 사직실내테니스장에서 회원들의 멤버십 강화를 비롯해 생활체육 회원의 체육활동 흥미부여와 초등학생 전문선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임지현(삼육대학교 교수, 전 국가대표) 교수를 초청하여 스타 서포터즈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초등학생 전문선수를 비롯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임지현 교수의 특강과 원포인트 레슨 등을 받으며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들은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우리 지역의 스포츠클럽까지 와서 강습해주는 것이 너무 설레고 클럽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기뻐했다.



02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테니스 우승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11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에 초등 전문선수부 2팀이 참가하여 1, 2위를 차지했다. 참가팀으로는 초등부 2팀, 성인부 1팀, 시니어부 1팀이 참가하여 성인부도 4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는 전국 63개 스포츠클럽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2016년에 시작하여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스포츠클럽간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01 2018 직원 소방훈련 개최

동래스포츠클럽은 지난 10월 11일(목) 동래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18 직원 소방훈련'을 개최하였다. 이번 소방훈련 교육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사항 첫 번째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피경로 안내 및 화재 대처법, 두 번째는 비상승강장치 사용방법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소화전 이용 방법을 교육 받아 효율적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02 2018 하반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진행

동래스포츠클럽은 지난 10월 6일(토)부터 오는 12월 29일(토)까지 동래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18 하반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주말 체육활동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운동에 대한 흥미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01 2018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후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8일(토)부터 16일(일)까지 개최된 2018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를 후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다목적 실내경기장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20명의 자원봉사자와 87개 팀 1,515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클럽간의 기량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부산진구 관내 학교 대상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피구팀을 결성하고 학교 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02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피구대회 참가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10월 19일(금)부터 22일(일)까지 전남 장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피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지난 9월 결성된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피구팀은 김홍규 감독을 비롯하여 15여 명의 학생선수들이 짧은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여중학부 2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한체육회장배 대회는 아시안컵 국제대회와 같이 개최되어 다양한 국가의 피구경기를 관람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의 피구팀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03 제3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부산 최대 규모로 참가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11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서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제3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산 스포츠클럽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하여 배드민턴, 수영 종목에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이에 스포츠클럽간 문화를 이해하고 회원들의 클럽 소속감과 만족도를 고취시킴으로써 부산진구민들에게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의 참가를 독려하는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챙김으로 건강한 체중 만들기

건강한 체중이란 무엇일까?

너무 말라도 문제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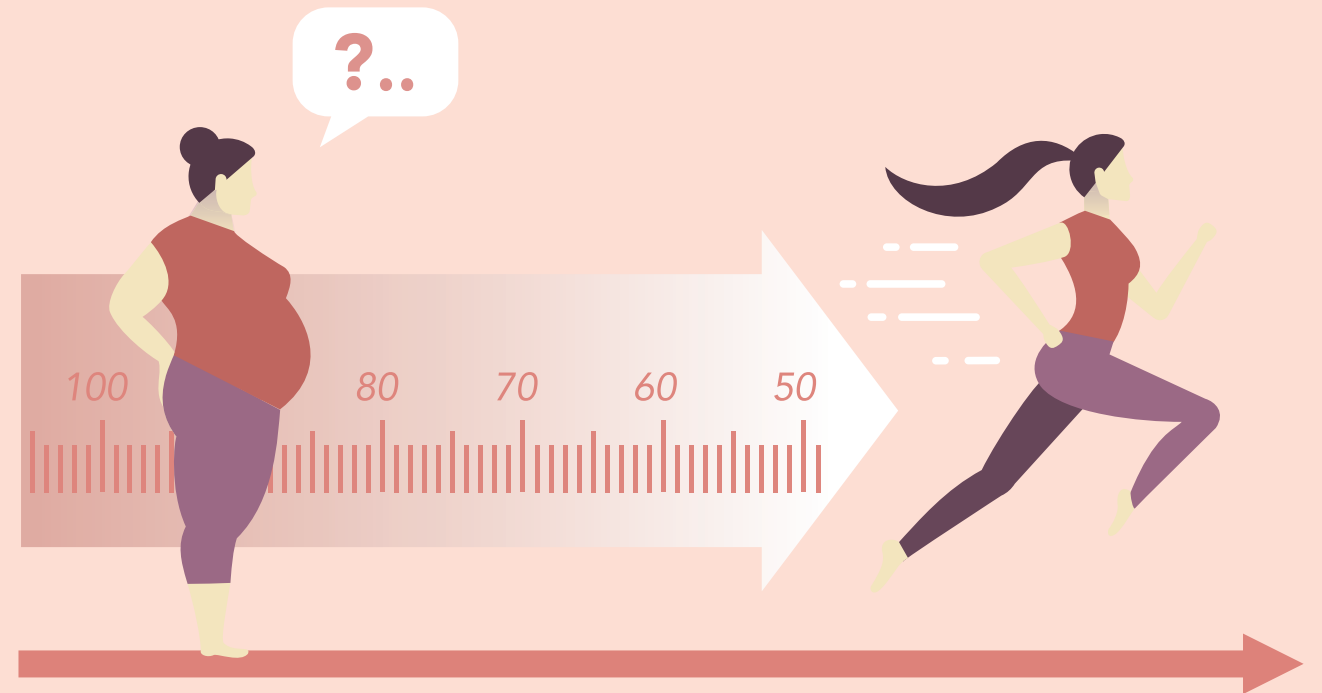
너무 뚱뚱해도 문제이다.

건강한 체중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질병에 쉽게 걸리고 수명이 짧아진다.

건강한 체중의 기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라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영양 실조로 저체중이 생긴 사람을 많이 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과체중 혹은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면 건강한 체중이고 어느 수준이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딱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 키가 얼마면 크고 얼마면 작다고 할 것인가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이다.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신수나 계산기가 필요하다. 키가 165cm이고 몸무게가 65kg이면 65를 1.65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이 수치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이상 23 미만이면 정상, 23 이상 25 미만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칼로 무 배듯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체질량지수가 높으면 비만 관련 질환이 증가한다. 비만 관련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질환, 수면무호흡증, 암 등이 있다. 체질량지수 23부터 위험이 올라가고 30 이상이면 위험은 매우 높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34.8%가 체질량지수 25를 넘는 비만이라고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인의 34.8%가 미용이 아닌 의학적인 이유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건강한 체중을 위한 '마음챙김'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서 먹거리가 풍부해졌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온갖 종류의 야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가옥 구조가 부엌이나 창고가 따로 있어서 밤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귀찮아서 관두었다. 아버지가 퇴근할 때 먹을 것을 사오지 않는 이상 야식을 사 먹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금처럼 고칼로리 음식이 많지도 않았다. 자동차와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아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주변에 널렸고 많이 걷지 않아도 출퇴근과 용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야말로 비만을 유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의도적인 노력은 크게 줄어도 문제없게 된다. 의도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마음챙김이 필요하다. 내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한다. 개념 있다는 말이 널

리 쓰이고 있는데, 념(念)이 필요하다. 한자 념을 가만히 보면 지금 금(今)에 마음 심(心)이 합쳐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는 상태이다. 내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서 되겠는가?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으로 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챙김 혹은 마음단속이 필요하다.

이 반대가 되는 것이 바쁨이다. 한자 바쁨 망(忙)을 보면 잃을 망(亡)에 마음 심(心)이 합쳐진 것이다. 마음을 잃어버려 정신이 없는 상태이다. 요즘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분주한 필자에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바쁘지?”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바쁘지 않습니다. 일이 많을 뿐입니다.”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신줄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살찌기 쉬운 세상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잘 챙겨야 한다. 즉, 념이불망(念以不忘)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체육회, 제8회 2018 대한민국SNS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한체육회는 10월 11일(목)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2018 대한민국SNS대상’에서 비영리 및 기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 학교체육, 공공스포츠클럽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다채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SNS간 상호 호환성을 높이고자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연계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주제를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인포그래픽·웹툰·동영상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적절히 사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등 굵직한 국제종합대회가 많았던 한 해로, SNS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을 전달하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계권 문제로 TV 시청이 불가능했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활약상을 사진으로 전달한 것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 3기’를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즐기기에 좋은 생활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리뷰형 콘텐츠의 틀을 벗어나, 카드뉴스·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회 2018 대한민국SNS대상’은 헤럴드경제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를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전문가 평가, 네티즌 투표를 통해 한 해 동안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캐릭터 달리(Dalli)를 소개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스포츠 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캠페인 전개를 위해 친근한 느낌의 캐릭터 ‘달리(Dalli)’를 소개했다.

대한체육회 캐릭터 ‘달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람쥐’를 의인화한 것으로, 활동적이고 영리하며 전투적인 성향을 가진 다람쥐를 통해 스포츠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을 내포하여 체육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했다.

아울러 달리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16종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5일(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7330」을 친구로 추가하면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선착순 무료로 지급된다. 이모티콘은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활용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아 탄생된 ‘달리’는 사·도 및 시·군·구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및 지역행사 시 ‘스포츠 7330’ 캠페인을 적극 알릴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미션인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달릴 예정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YOG) 대한민국 선수단 선수 28명 참가, 12개 메달 획득 쾌거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총 메달 12개를 기록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태권도, 펜싱, 사격에서 강세를 보인 대한민국 선수단은 유도, 수영, 양궁, 댄스스포츠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특히, 태권도 종목은 -63kg(남)급 조원희의 금메달을 비롯하여 -44kg(여)급 강미르와

-55kg(남)급 김강민이 은메달을, -48kg(남) 임성빈과 -49kg(여) 이예지가 동메달을 따는 등 참가선수 모두가 메달을 획득하여 중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아울러, 펜싱 사브르 남녀 개인전에서는 현준이 은메달을, 이주은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였으며,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는 236.7점의 기록으로 성윤호 선수가 2위를 차지했다. 펜싱의 현준, 이주은 선수는 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국가별 선수들을 혼합 구성하여 치러진 '국제 팀 경기'에서도 '아시 아오세아니아' 대륙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개최종목에 포함된 브레이크 댄스에서는 김예리가, 수영 200m 평영(여)에서는 중학생 선수 왕희송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여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었다. 유도 -63kg(여)급에서는 김주희 선수가 본인의 체급보다 한 체급 높게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양궁 리커브(여)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손예령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10월 6일(토)에 개막하여 206개국 4,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32개 종목 24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뤘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청소년 선수들은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경험과 경기력 향상의 기회 뿐만 아니라 IOC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올림픽대회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출처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제35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성료



대한체육회는 11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소재 코모도호텔에서 심판 공정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제35기 클린심판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35기 클린심판아카데미는 27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국제·국내 1~3급 심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심판교육과정으로, 총 10개 과목의 강의, 토론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제별 토론을 비롯하여 ▲좋은 심판의 조건과 판정, ▲심판의 윤리 의식, ▲스포츠 심판의 심리 및 스트레스 관리, ▲갈등조정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선수의 이해, ▲스포츠 손상 관리 및 예방, ▲스포츠 리더십과 공정심판의 길, ▲스포츠 심판의 인권 등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심판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 심판 개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린심판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이 심판 특성화 및 개인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를 실시하였다.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지역기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스포츠클럽에서는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높은 수준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재능이 발굴되어 선수로 활약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7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스포츠클럽 간 교류 및 스포츠클럽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전주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각 클럽의 운영자 및 회원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닮은 듯 서로 다른, 색다른 매력의 두 스포츠

럭비 VS 미식축구

겉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한 럭비와 미식축구. 여러분은 럭비와 미식축구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럭비와 미식축구를 동일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식축구가 럭비에서 유래되긴 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경기로 경기 방식과 복장, 공 모양 등에서 차이점이 많다. 럭비인 듯 럭비 아닌 럭비 같은 미식축구. 이번 호에서는 럭비와 미식축구에 대해 알아본다.

미식
축구



럭비

● ●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된 럭비(Rugby)

럭비의 정식 명칭은 럭비 풋볼(Rugby Football)로 타원형의 볼을 이용해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쓰며 상대편 진지에 들어가 득점을 얻는 경기로 볼을 가진 선수를 붙잡거나, 넘어뜨리는 등 격렬한 스포츠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근대 럭비는 영국에서 12세기 경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되던 풋볼에서 유래되었다. 19세기 들어와 영국에서는 각 학교가 제각기 특색 있는 풋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만으로 경기하는 드리블링 게임인 ‘헤링애트골’의 전통적 게임형식과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가 럭비스쿨이었다.

이 학교에서 1823년 축구경기 도중 윌리엄 웹 엘리스(William Webb Ellis)라는 소년이 규칙을 어기고 공을 들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상대 선수들이 제지하게 된 우발적인 사건이 생겼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럭비 룰의 기초가 이 학교에서 초안 되었고, 이것이 각 학교 사이에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그 후 럭비는 통일된 규칙으로 급속도로 발전하여, 영국 본토와 자치령, 유럽 등지에 보급돼 순수 아마추어 경기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럭비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20년대 초로 주로 경성전기, 철도청, 경성사범학교 등을 중심으로 경기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27년 봄부터인데, 1928년 한국 최초의 리그전이 개최되었고, 이듬해 조선럭비축구협회가 발족됐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수도사단 등에 팀이 구성되어 활기를 띠었다.

● ● 희생협동정신이 담긴 신사적인 스포츠

럭비는 각 팀 15명 이내의 선수가 전·후반 각각 40분 경기와 5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공을 가지고 상대측 인골(In goal) 지역에 볼을 땅에 갖다 대는 것이 ‘트라이(try)’이며 5점이 주어진다. 트라이 후 이어진 골은 2점, 페널티킥에 의한 골 3점, 드롭킥에 의한 골 3점이다. 골은 킥한 볼이 지면이나 선수에 닿지 않고 필드 오브 플레이로부터 상대측의 크로스바 위와 골포스트 사이로 넘어갔을 때 얻는다.

럭비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격렬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손과 발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그 격렬함 때문에 럭비,가 자칫 난폭한 경기로 오인할 수 있으나 희생, 봉사, 협동, 심판에 대한 절대 복종 등이 내재되어 있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그러므로 한번에 3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한 곳에서 경기를 해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 축구 + 럭비 =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



미식축구는 영어로는 아메리칸 풋볼(American Football)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단지 풋볼이라고 한다. 신대륙이 발견된 뒤에 개척자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온 축구와 럭비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경기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답게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또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생소한 스포츠다. 요즘 들어 대학에 미식축구 동호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식축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을까? 그것은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미식축구 경기는 1869년 11월 리트거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에서 거행된 경기이다. 1876년에는 미국대학 미식축구연맹이 창설되었다. 그 후 ‘미식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터 캠프(Walter Camp)에 의해 지금과 같이 팀당 주전선수가 11명으로 정해졌고, 4차례 연속 공격을 채택하는 등 획기적인 규칙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초가 다져졌다.



● ● 뛰어난 체력과 스마트한 두뇌가 필요한 경기

미식축구는 야구와 마찬가지로 공격과 방어가 분명하게 나뉜다. 공격 측에는 4차례 연속해 공격권이 주어진다. 4차례 공격에서 10야드를 전진했을 경우에는 다시 4차례의 공격권이 주어진다. 이것을 되풀이해 상대 쪽 골 안에 공을 가져가면(터치다운) 득점이 된다. 4차례 공격하는 동안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면 다운의 종료 지점에서 공격권을 상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야구, 농구와 마찬가지로 과학성, 합리성, 융감성을 앞세우는 미국인들이 계산적으로 만든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공격과 방어가 나뉘어 있으므로 우연성의 기회가 없는 경기이다. 하나하나의 플레이에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이 미리 작전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동작을 잘못하면 공을 전진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뛰어난 체력과 함께 두뇌가 필요한 스포츠이다.

● ● 럭비 VS 미식축구



럭비와 미식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 장비 유무다. 럭비가 가벼운 운동복 차림인 것에 반해, 미식축구는 어깨패드부터 헬멧, 마스크 등 각종 장비를 무장한다. 이는 럭비에는 없는 ‘블로킹(blocking)’이라는 기술 때문이다. 공이 없는 선수들끼리도 서로 부딪히고 쓰러뜨릴 수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럭비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하지만, 미식축구는 공격과 수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자 공격권을 가지고 진행한다.

또한 손을 사용해 공을 앞으로 패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다르다. 럭비는 공을 발로 차거나 직접 가지고 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진 패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식축구는 좌우, 전방, 백패스가 모두 가능하다.

럭비 영화

RUGBY



60만번의 트라이(2013)

감독 박사유, 박돈사 | 출연 문정희(내레이션), 김관태

일본 오사가 재일조선인고등학교 오사카조선고급학교(오사카조고) 럭비부의 2010년 전국대회 도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책임감 강한 주장 '관태', 17세 이하 일본대표팀에서 활약한 에이스 '유인', 럭비부 최강 브레인 부주장 '용휘', 개그담당 후보선수 '상현', 무용부 출신 매니저 '옥희'. 졸업을 앞둔 오사카 조고 3학년들은 60만 동포들의 꿈을 안고 전국대회 '하나조노'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린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주장 '관태'의 부상과 선수들 사이의 오해, 오사카시의 학교 보조금 지급중지라는 최악의 소식까지 더해져 단단했던 팀워크마저 흔들리고 마는데...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며 럭비에 살고 죽는 일본에서, 그것도 민족·이념적으로 묘한 관계에 놓인 조선인들이 가장 큰 규모의 대회에서 선전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화제를 낳은 작품.

우리가 꿈꾸는 기적 : 인빅터스(Invictus, 2009)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 출연 모건 프리먼, 매트 데이먼

19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실화!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발된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 이후 본 첫 럭비 경기에서 남아공의 흑인들이 거의 백인으로 이뤄진 자국의 럭비팀인 '스프링 보кс'가 아닌 영국의 흑인으로 구성된 팀을 응원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종차별 철폐와 더불어 하나의 럭비 팀 내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조화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스포츠를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결심하고, '스프링 보кс'의 주장 프랑소와 피나르를 초대해 1년 뒤 자국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해 달라고 제안한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우승!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들은 온 국민에게 기적 같은 경험을 선사하고 이 날의 경기는 흑과 백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미식축구 영화

AMERICAN FOOTBALL

블라인드 사이드(The Blind Side, 2009)

감독 존 리 행콕 | 출연 산드라 블록

슈퍼볼 스타,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목인 Blind Side는 미식축구 용어로 경기에서 터치라인(touch line)에 가장 가까운 좁은 지역, 쿼터백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의미한다. 영화는 일반인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 시절 약물중독자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소년이 추수감사절 전날 밤 반팔 셔츠만 입은 채 체육관으로 잘 곳을 찾아 향하자 이를 본 '리 앤'이 자신의 집으로 마이클을 거두면서 일어나는 성장스토리 영화다. 무엇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울림이 전해진다.

드래프트 데이(Draft Day, 2014)

감독 이반 라이트만 | 출연 케빈 코스트너, 제니퍼 가너

전미 최대 스포츠, 미식축구의 빅 이벤트 '드래프트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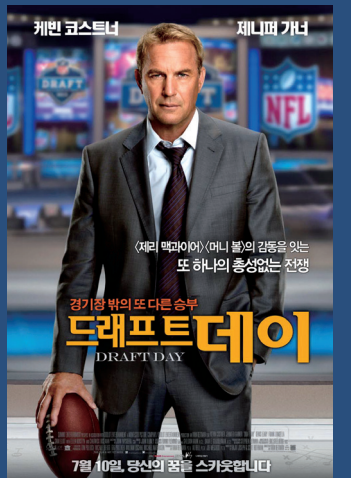
팀의 운명을 결정할 신인 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단장 씨니는 우여곡절 끝에 획득한 1순위 지명권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수많은 구단과 선수, 팬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운명의 날. 최고의 선수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물밑작업과 치열한 심리전 속에서 갈등하던 씨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는데...

과연, 그는 숨 막히는 심리전을 이기고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리멤버 타이탄(Remember The Titans, 2000)

감독 보아즈 야킨 | 출연 덴젤 워싱턴, 윌 패튼

1971년 고교 미식축구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지역 교육청이 흑인 고등학교와 백인 고등학교를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흑인 코치 허만 분이 T.C 윌리엄스 고등학교 미식축구 헤드 코치로 임명돼 전임 백인 코치 빌 요스트가 조감독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허만 분 감독의 강력한 통솔력과 카리스마 아래 피부색의 장벽을 뚫고 서서히 뭉치게 되는데... 함께 일하면서 풋볼에 대한 열정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두 사람. 화는 흑인과 백인 간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스포츠를 통해 해결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일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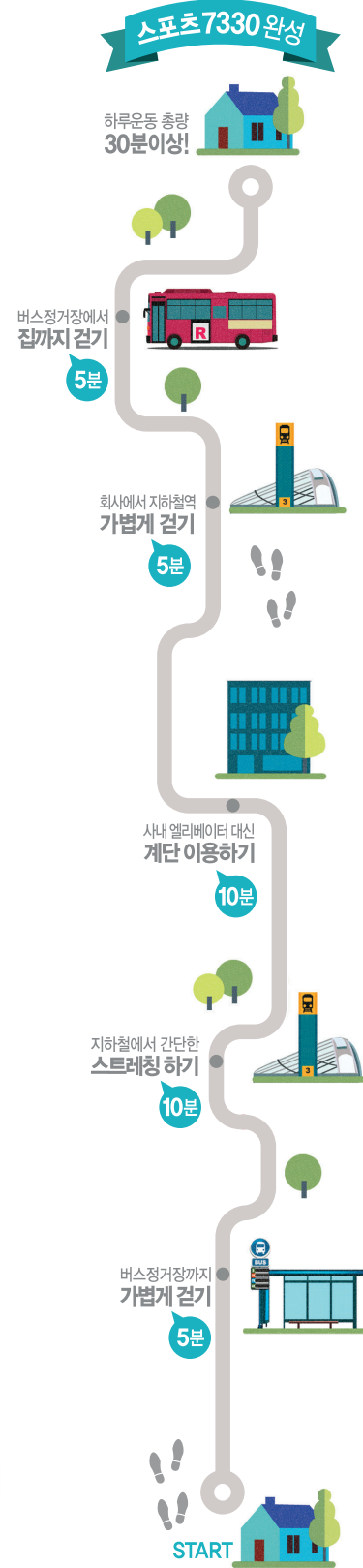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스포츠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듭니다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